

사회복지사의 외상사건경험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영향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김평호*, 이유리**

남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Mental Health of Social Worker who Experienced Traumatic Event

Pyeong-ho Kim*, Yu-Ri Lee**

Master's Thesis, Nambu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Social Welfare, Nam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외상후스트레스와 정신건강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남, 광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외상경험, 외상후스트레스,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정신건강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조사 하였고,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후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정신건강 간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회복탄력성은 외상후스트레스와 정신건강간의 영향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회복탄력성과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개입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사회복지사, 외상사건경험, 외상후스트레스, 정신건강, 회복탄력성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mental health. To get the result,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social workers who work in Gwang-Ju and Jeonnam area and traumatic experience, posttraumatic stress,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outcome measures were used in the survey. Key outcome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showed that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have a direct relationship. Secondly, it was analyzed that resilience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mental health.

Based on these results, comprehensive interventions for improving the mental health and resilience of social workers were proposed.

Key Words : Social worker, Traumatic experience, Post-traumatic stress, mental health, Resilience

Received 1 August 2016, Revised 31 August 2016
Accepted 20 September 2016, Published 28 Sept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Yu-Ri Lee(Dept. of Nambu University)
Email: yrlee@namb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 인구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본격화, 이혼 및 단독가구의 급증, 보편적 복지개념의 확산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양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등 공적 부조에 의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0]. 이렇듯 사회복지서비스는 확대되는 반면 이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인력의 증원은 지체되면서 업무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직무관련 외상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박미은[5]의 연구에 따르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상당수가 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형태는 언어적 괴롭힘과 위협, 실제적인 신체폭력과 폭력시도, 기물파손 등을 다양하며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부부폭력, 이혼조정, 아동학대, 학교폭력,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폭력적인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27, 32].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노동조건실태조사에서 37.9%가 치료가 필요한 임상적 우울, 14.3%가 고도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률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7.5%로 일반 국민의 16.4%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8]. 대인관계 기반의 업무특성상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언이나 폭행, 사고, 폭력목격 등 직접적인 외상을 경험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노출의 위험성에 따른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복지사들은 외상위험에 높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입에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 외상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1, 13, 4, 12]. 직무상의 외상경험은 조직 구성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킨다는 경험적 증거이며[23, 38, 39],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피로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우울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직무외상과 관련한 외상 경험은 사회복지사들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 및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외상경험 관련 스트레

스와 정신건강 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외상후스트레스 사건이 우울과 불안을 포함하는 많은 심리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외상후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를 견디지 못해 소진되거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 일부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리적 안녕감을 회복하고 더욱 성숙해 지기도 한다[8, 30, 1]. 이러한 외상사건과 정신건강 등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들로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강인성 등의 개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동료지지, 상사지지, 결혼관계 등 사회적 지지체계 요인이 보호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34, 19, 9, 11, 14, 6].

본 연구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영향관계에 매개효과를 갖는 요인 중 회복탄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회복탄력성이란 유연하면서도 축적 가능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이나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개인이 가진 능력의 하나로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한다[3].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나 역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효과적이지 못한 대처를 하며 그 결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상태가 좋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35, 40]. 또한 Tusaie과 Dyer[36]는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이 일상적 업무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업무수행을 촉진시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고 하였다. 최희철[21]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우울정서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권수현[1]은 회복탄력성이 높은 유치원 교사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주의통제와 감정조절을 효과적으로 적용한다고 보고했고, 회복탄력성이 낮은 교사는 작은 실수에도 우울감을 경험하며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 회복이 느리다고 하였다. 박정숙[7]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긍정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회복탄력성은 환경적 요구에 따라 긴장·인내의 수준을 강화하거나 악화시키는 조절 기능을 하며, 심각한 외상사건을 경험했을 때 균형추의 역할을 하여 외상사건 스트레스, 직무스트

레스 등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건강, 병리적 행동문제로 진행되는 것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써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외상경험 관련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다룬 국내 연구에서 소방직공무원,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13, 17, 15, 2, 22, 19],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였기에, 사회복지사들의 자살시도, 우울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최근의 시기적 시급성을 반영할 때 중요성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사고 등 정신건강 영향변인들 간에 단일차원의 직접적 영향력 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적 차원의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의 영향요인을 고려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적용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외상사건경험에 따른 외상 후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외상 후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남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IRB 심의절차를 거친 후 IRB 승인(1041478-201603-HR-002)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남, 광주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로 사회복지영역 중에서도 행정기관이 아닌 서비스제공기관으로써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실증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총 19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중 전남 사회복지사 78명, 광주 사회복지사 112명이었다.

2.2 측정도구

2.2.1 외상경험

Tedeschi & Calhoun에 의해 고안된 미국판 PTGI개발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상경험측정연구결과 Cronbach's $\alpha = .705$ 로 나타났다.

2.2.2 외상후스트레스(PTSD)

본 연구의 외상후스트레스 척도는 IES수정판을 은헌정 등[16]이 한국어로 번안한 IES-R-K를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으며, Cronbach's $\alpha = .954$ 이다.

2.2.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Reivich & Shattee[33]에 의해 고안된 회복탄력성 척도를 활용하여 김주환[3]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으며, Cronbach's $\alpha = .869$ 로 나타났다.

2.2.4 정신건강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 Derogatis et al[29]에 의해 고안된 SCL-90을 활용하여 이훈구가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좋지 않으며, Cronbach's $\alpha = .970$ 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SPSS 20.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정규성 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X^2 , CFI, TLI, RMSEA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3. 분석결과

3.1 측정변수간 기술통계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조건(왜도 <2 , 첨도 <7)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모형에 선정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Categories		M (SD)	Skewness	Kurtosis
PTSD	1	2.12(1.196)	-.461	-.781
	2	2.07(1.136)	-.376	-.644
	3	1.76(1.236)	-.055	-1.143
	4	1.78(1.174)	.043	-.808
Resilience	1	2.72(.857)	.175	.006
	2	2.97(.978)	.293	-.438
	3	3.14(1.004)	.134	-.581
	4	3.94(.927)	-.610	-.068
Mental health	1	2.1877(.93112)	.436	-.396
	2	2.1877(.93112)	.436	-.396
	3	1.7737(.75468)	.669	-.492
	4	1.7982(.79954)	1.134	1.476

3.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지수가 $r < .8$,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이하,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0.1이상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elat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597**	1										
3	.507**	.584**	1									
4	.535**	.606**	.688**	1								
5	-.064	-.072	-.060	-.205**	1							
6	-.282**	-.322**	-.307**	-.383**	.503**	1						
7	-.300**	-.273**	-.169*	-.261**	.193**	.402**	1					
8	-.084	-.082	-.183*	-.060	-.008	.179*	.196**	1				
9	.290**	.290**	.315**	.303**	-.284**	-.250**	-.283**	-.305**	1			
10	.228**	.211**	.274**	.249**	-.167*	-.269**	-.282**	-.273**	.653**	1		
11	.196**	.177*	.216**	.219**	-.118	-.273**	-.209**	-.418**	.525**	.686**	1	
12	.282**	.231**	.325**	.257**	-.125	-.266**	-.273**	-.323**	.574**	.653**	.70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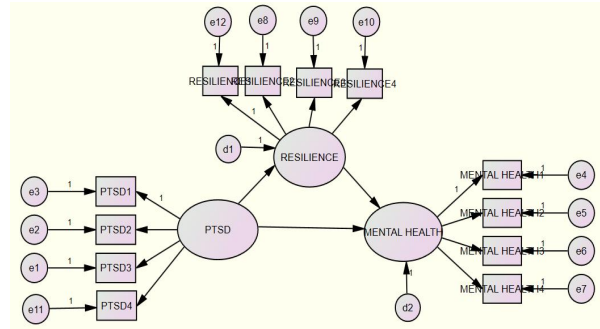
1)PTSD 1, 2)PTSD 2, 3)PTSD 3, 4)PTSD 4, 5)Resilience 1, 6)Resilience 2, 7)Resilience 3, 8)Resilience 4, 9)Mental health 1, 10)Mental health 2, 11)Mental health 3, 12)Mental health 4

3.3 연구모형 분석결과

3.3.1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우선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정신건강에 이르는 경로를 구조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지수의 평가 기준이 확립된 CFI, TLI, RMSEA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카이제곱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Study Model

<Table 3> Goodness-of-fit index

	χ^2	p	df	CFI	TLI	RMSEA
Model fit	124.055	.000	51	.920	.897	.080

90 Percent Confidence Interval for RMSEA = (0.068;0.092)

3.3.2 연구모형의 분석

사회복지사의 외상후스트레스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에도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direct effect)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stimates of model

Path	Estimate		S.E.	C.R.
	B	β		
PTSD → Mental health	.194	.259	.072	2.698**
PTSD → Resilience	-.263	-.476	.063	-4.142***
Resilience → Mental health	-.393	-.290	.139	-2.832**
PTSD → PTSD1	1.000	.695		
PTSD → PTSD 2	1.030	.753	.112	9.163***
PTSD → PTSD 3	1.172	.788	.123	9.508***
PTSD → PTSD 4	1.183	.838	.119	9.922***
Mental health → Mental health 1	1.000	.721		
Mental health → Mental health 2	1.257	.838	.118	10.690***
Mental health → Mental health 3	.988	.814	.095	10.423***
Mental health → Mental health 4	1.049	.815	.100	10.435***
Resilience → Resilience 1	1.000	.535		
Resilience → Resilience 2	1.882	.882	.334	5.628***
Resilience → Resilience 3	1.036	.473	.206	5.026***
Resilience → Resilience 4	.454	.225	.169	2.688**

** P<.01, *** P<.001

외상후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t=-4.142, p<.001$)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외상후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상후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외상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t=2.698, p<.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은 정신건강에 유의미하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t=-2.832, p<.01$),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3.3 매개효과 분석

연구모형에서 외상후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은 외상후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후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138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통한 유의도 검증결과 $p=.02$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B	β	B	β	B	β
PTSD → Mental health	.194	.259*	.103	.138*	.297	.398**
PTSD → Resilience	-.263	-.476**	.000	.000	-.263	-.476**
Resilience → Mental health	-.393	-.290	.000	.000	-.393	-.290*

* $P<.05$, ** $P<.01$ 95% Bias-corrected bootstrap percentile(.016;.388)

4. 결론 및 논의

4.1 결론

본 연구는 전남, 광주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

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CFI와 TLI는 각각 .920과 .897, RMSEA는 .080으로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외상후스트레스, 정신건강, 회복탄력성 간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후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후스트레스가 높으면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영향관계를 통계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13, 15, 17]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외상후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외상후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7, 1] 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회복탄력성이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고,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는 선행연구[21, 14] 결과를 증명한 것이다.

넷째, 회복탄력성은 외상후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19, 2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회복탄력성이 외상후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외상경험 후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정신건강의 상태를 일정부분 완충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논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상사건경험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악화되어지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과 일의 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외상사건경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감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개인 외상 및 직무외상 모두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실천에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스스로의 보호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적 치유상담 및 슈퍼비전 정례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내용에 외상 관련 치유 프로그램 적용 등이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 활동과 관련하여 정신건강과 안정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개인적 수준에서 외상관련 스트레스나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로 인한 고통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조직적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대응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 증진 및 정신건강 증상 스크리닝 의무화와 같은 인식 제고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복지의 분야에서 최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을 사회복지사에 알맞게 변화시켜 제공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다. 업무의 효율성 증진은 물론 사회복지사의 정신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담, 컨설팅, 코칭 서비스 연계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회복탄력성이 정신건강 수준과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고, 외상후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외상사건경험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로 인해 회복탄력성이 떨어진 사회복지사나 외상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의 저하로 인한 정신건강의 악화가 예상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외상관련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돕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예방과 치료적 차원에서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의 적용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개인적 유능성, 긍정성 및 낙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회 보수교육 및 학회 차원의 워크숍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에 기반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점을 갖는다. 사회복지사들의 기관 및 근무의 특성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 정도의 차이,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무 관련 특성을 고려한 외상경험 및 정신건강 관련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복탄력성에 대하여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들을 고려한 후속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외상사건 경험 후 인과적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종단연구 및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종단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u-hyeon Kwon, 2010, "Analysis of Kindergarten Teachers' Resilienc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 Min-seok Kim, 2016,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Resilience, Perfectionism and Work Environment Perception on Job Stress.",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 20, No 2, pp. 53-73.
- [3] Ju-hwan Kim, 2009, "How to be happy: Resilience", Korean Daily Report.
- [4] Man-won Park, Gyu-yong Joe, Chang-hwan Paik, 201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Job Stress and Post-traumatic stress on Depressive Symptoms of Social Welfare officials.",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5, No 3, pp. 1-29
- [5] Mi-eun Park, 2006, "A Study on Client Violence toward Intern Social Workers in Mental Health Settings.", Social Welfare Research, Vol 30, pp. 160-166
- [6] Ung-yeol Park,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Factors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Focusing on Stress as a Mediator and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Doctoral Thesis, Cheong 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 [7] Jeong-suk Park, 2013, "Influence of Resilience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Elderly", Master'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Graduate School.
- [8] Ju-eon Park, 2005, "How much stress do I have?", Korean Anxiety Disorder Association, Stress management Special Committee, Managing Stress (pp. 45-54). Seoul: Ga Rim.
- [9] Hyeong-chaee Park, 2009, "A Study on a Client Violence Experienced Social Worker's Post Traumatic Stress", Master's Thesis, So 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0] Hyeon-suk Shin, 2014, "Effects of a Resilience on Narcissistic and Depression in Korea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yong 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1] Seong-gyeong Yu, Hye-won Shim,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 16, No 4, pp. 189-206.
- [12] Ji-hyeon yu, Gi-hwan Park, 2009, "Psycho-Social Variables related to PTSD Symptoms in Fire-Fighters: Focusing on Depression, Anxiety, Coping method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8, No 3, pp. 833-852.
- [13] Myeong-suk yun, Seong-hye Kim, 2014,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between the Relationship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among Firefighter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Vol 42, No2.
- [14] Myeong-suk yun, Eun-a Park, 2012,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ego-resili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and drinking behavior among social workers.", Korean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18, pp. 108-130.
- [15] Ye-sim Yun,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Impact on Event on the Mental Health of Fire Fighters.", Master's Thesis, Gwang 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welfare.
- [16] Heon-jeong Eun et al, 2005, "A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Neuro Psychiatric Association, Vol 44, No 3, pp. 303-310.
- [17] Yeong-ju Lee, 2011, "A Study of the effect of traumatic events and PTSD on the mental health status among fire-fighters.", Master's Thesis, Kang 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welfare.
- [18] Sang-hyeok Lim, 2013, "The Result of an Investigation of Health Conditions of Social Welfare Official and Court Official", For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 [19] Hye-uk Jeong, Ok-hyeong Lee, 2011, "The influence of job stress,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on job satisfaction among beginning and experienced preschool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 34, No 3, pp. 31-53.
- [20] Hong-won Jeong, Yeong-beom Lee · Seung-yeon Nam, 2011, "Social-Welfare Official's Job Competency and Work-Training Desire", Social Solidarity and administration, Vol 21, No3, pp. 143-167.
- [21] Hui-Cheol Choi, 2013, "The Effect of the Resilience on Firefighter's Job Stress and Depression Relations.", Korean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23, pp. 69-91.
- [22] In-Hui Hwang, 2009, "Influences of police officers's job stress and traumatic stress on burnout.",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3] In-Hui Hwang, Yung-Ho Lee, 2012, "Influences of police officers's job stress and traumatic stress on burnout ",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31, No 4, pp. 1115-1138
- [24] Adams, Boscarino, Figley, 2006, "Compassion Fatigue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Social Workers: A Validation Stud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76, No 1.
- [25] Agaibi & Wilson, 2005, "Trauma, PTSD, and Resilie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and abuse, Vol 6, No 3.

- [26] Block & Kremen,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pp. 349-361
- [27] Breakwell & Rowett, 1989, Violence in Social Work. pp.230-258, in *Human Aggression: Naturalistic Approaches*, edited by Archer, J., and BROWN, K. London; Routledge
- [28] Briere & Scott, 2006, "Principles of Trauma Therapy", Sage Publication, Vol 17
- [29] Derogatis, Lipman, Covi, 1973, "SCL-90: 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 *Psychopharmacology Bulletin*, Vol 9, No 1, pp. 13-28
- [30] Fraser, Kirby, Smokoski, 2003,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M. W. Fraser (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pp. 13-66). Washington, DC: NASW Press.
- [31] Holohan, Grief, Bedard, Suvak, Buckley, 2004, "Twenty-Four-Hour Ambulatory Assessment of Heart Rate and Blood Pressure in Chronic PTSD and Non-PTSD Veteran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17, No 2.
- [32] Newhill(2003). *Client Violence in Social Work Practic: Prevention, Intervention, and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 [33] Reivich & Shattee, 2003, "Penn resilience training for college students: Leader's guide and participant's guid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 [34] Roy, Carli, Sarchiapone, 2011, "Resilience mitigates the suicide risk associated with childhood traum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133, No 3.
- [35] Rutter,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147, pp. 598-611.
- [36] Tedeschi & Calhoun,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9, pp. 455-471.
- [37] Tusaie & Dyer, 2004, "Resilience: A historical review of the construct.", *Holistic Nursing Practice*, Vol 18, No 3, pp. 3-10.
- [38] Mi-Jin Kim, 2015, Gyun-Young Kang, "The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39-47.
- [39] Eun-Jung Lee, Jee-Hee Kim, 2015, "Cognitive behavior intervention for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in fire fighte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2, pp. 13-18.
- [40] Skovholt,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Massachusetts: Prentice Hall.

김 평 호(Kim, Pyeong Ho)



- 2014년 2월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사회복지학, 장애인복지, 정신건강 등
- E-Mail : kph7942@naver.com

이 유 리(Lee, Yu Ri)



- 199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장애인 가족, 아동청소년정신건강
- E-Mail : yrlee@nambu.ac.kr